

한 국 어 판

True Peace

Vol. 45

TRUE PARENTS' MESSAGE AND NEWS

天一國 12年

天曆 3월

2024년 양력 4월



권두언

참부모님 말씀

참부모님 동정

특집

SPECIAL BRIEFING

HJ NEWS

초림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되어 VISION 2025 승리승리승리!

VISION 2025 승리를 위한 신한국 목회자 참부모론 특별교육 폐회식 섭리의 진실을 밝히며 교육해야

참부모님 동정

VISION 2025 승리를 위한 신한국 목회자 참부모론 특별교육

천일국 13년을 향한 참부모님 섭리경륜

신탐건 제1기 해외 선교 활동



초림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되어 VISION 2025 승리!승리!승리!

송광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한국 협회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 세계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모든 실패된 것을 날려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참어머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체적 천일국 건설’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2023년은 참어머님께서 경륜하시는 기적과 같은 황금기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크나큰 기쁨을 뺏속 깊이 느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신한국 가정연합은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고 하신 참어머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심원과 하나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별히 천심원 특별철야정성과 HJ천주천보수련 대역사에 모든 공직자와 식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있으며, 천심원 순회집회와 중심영 해원 등 신령역사를 통해 식구들의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위에 전도를 통한 교회성장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한국은 새식구 교육 및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평 행복원리세미나, 천운상속 천심수련, 원본부교회 성지순례 등 새식구들이 참부모님의 말씀과 생애를 바로 알고 체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교육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 협회차원에서 목회자들의 목회학과 신학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설교 및 전도역량 강화를 위한 목회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젊은 청년들이 전도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0세 이하 청년공직자들의 교회장 발령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도 함께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신한국은 청룡의 해를 맞아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14일 동안 모든 목회자와 공직자들 참어머님의 복종과 같은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참부모론 특별교육’을 받고 ‘천심원 특별철야정성’을 드리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실체성령 초림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되어 예수님의 본질을 밝히고, 기독교가 사명을 다해 참어머님과 하나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전력투구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스밸리 특별성명 전수식을 통해 데스밸리 성명을 전국 교회장이 나누어 가지며 “하늘을 공경하는 소금과 같은 의인”을 찾아 세상을 복귀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참부모론 특별교육 폐회식에는 참어머님께서 친히 왕림해 주셔서 신한국이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되어 하늘부모님을 기쁘게 모시는 천일국의 종주국이 되길 축복해 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 세계 축복가정 형제자매 여러분!

참어머님께서신통일한국의 기반 위에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하늘 앞에 온전히 봉헌해 드리고자 하십니다. 참어머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황금기에 초림 독생녀가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외치지 않으면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한국 가정연합은 VISION 2025 승리의 결실을 참어머님께 안겨드리기 위해 참어머님께서 하사해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용맹한 하늘의 전사가 되어 천운을 몰아 총진군하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CONTENTS



권두언

- 02 초림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되어
VISION 2025 승리!승리!승리!
송광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한국 협회장

특집

- 10 VISION 2025 승리를 위한
신한국 목회자 참부모론 특별교육

SPECIAL BRIEFING

- 14 천일국 13년을 향한
참부모님 섭리경륜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HJ NEWS

- 17 신탐건 제1기 해외 선교 활동
21 천일국 12년 성화 참자녀님 추모예배
23 기독교권 복귀를 위한
참부모론 강의를 개발 제3차 공청회
24 HJ천원 플라워파크
28 HJ글로벌뉴스 개편 및
대륙별 영상실무자 교육

현장소식

- 신미국
30 지역별 목회자 수련



참부모님 말씀

- 04 해방해 드려야 할 하나님
천성경 제1편 참하나님 제4장 3절
06 섭리의 진실을 밝히며 교육해야
VISION 2025 승리를 위한
신한국 목회자 참부모론 특별교육 폐회식

참부모님 동정

- 08 참부모님 동정

신유럽

- 32 국제 여성의 날 기념식
신아시아태평양
34 2024년 뉴질랜드 세계 낚시 월드컵
신남미
36 효정 아카데미 발대식,
효정랑 14기 입학식 및
효정랑 12기 졸업식
신아프리카
37 효정랑 2기 21일 수련 개회식

인터뷰

- 38 효정의 삶
데이비드 이튼





해방해 드려야 할 하나님

천성경 제1편 참하나님 제4장 3절

복귀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까지 완성하지 못한 모든 기준, 즉 아담이 타락한 기준, 예수님이 성취하지 못한 기준 등을 모두 현세에 끌어 들여 해명하고 거둬 탕감하여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해야 할 것이 통일교회의 사명이고, 스스로 그것을 실행하여 선생님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세계에 널리 있는 통일 교회 식구들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선생님의 사명입니다. (22-181, 1969.2.2)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에게 부여하였던 그 환경적 이념세계에 대한 것을 다시 어떻게 자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모질고 아무리 원수 악당들이 반대하고 투쟁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념과 사상 기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사회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미쳐지는 모든 악의 결과를 타개하고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밀려 떨어져 나가서는 복귀섭리의 완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혹은 뜻을 대하고 있

는 개인은 ‘이 세계에는 나만 남아 있고 이 세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다.’라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신념을 안 가지고는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환경을 대표한 상대적 존재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두고 볼 때 내가 이 세계를 넘어서 타락하지 않은 이상적 아담의 이념을 나의 실제적 주체사상으로 세워서 결의한 그 결의가 이 사망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는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번번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65-179, 1972.11.19)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혈통적인 인연을 가질 수 있는 참된 가정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부모로 말미암아 거짓 사랑과 거짓 생명과 거짓 혈통의 인연을 맺음으로써 우리 몸 마음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담 해와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또 아담의 아들딸 사이에 살육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복귀하기 위한 구원섭리가 복귀섭리입니다. 구원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참된 몸 마음이 하나된 아들딸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된 부부로

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참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275-57, 1995.10.31)

메시아가 오는 목적은 무엇이나? 사탄 주권을 타파해 버리고 인류를 하늘 편으로 찾아오고 사탄을 추방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와 하나 되어 구원섭리를 끝내는 것이 메시아가 오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연의 뜻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복귀섭리를 완성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74-177, 1974.12.9)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다 한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즉 창조이상을 완성할 참된 본연의 아기씨로 와서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근원이 되는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 편이 승리한 근본섭리의 터전 위에 임재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까지의 승리적인 기반 위에 바로 서시어서 그가 못다 이루신, 신부를 찾아 참부모가 되시어 만민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277-211, 1996.4.16) 





섭리의 진실을 밝히며 교육해야

VISION 2025 승리를 위한 신한국 목회자 참부모론 특별교육 폐회식 참여어님 말씀
천일국 12년 천력 1월 27일(양 3. 7) | HJ천주천보수련원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려서 63년 만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특히 기독교권 복귀를 위해서 일해야 하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담 해와의 타락 이후 하늘부모님은 구원 섭리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적인 형태를 이룰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4천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겠습니까?

그리하여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가 탄생했는데, 출생한 지 33년 만에 다시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하늘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책임 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 아픔 가운데서 하늘부모님 앞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마’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와야 합니다. 하늘 섭리는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게 되면 반드시 탕감이 따

르기 때문에 섭리의 완성 시대에 있어서는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초림 독생자는 2천 년 전에 탄생이 되었지만 독생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탕감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독생녀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류의 아버지가 될 분을 십자가에 매단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탕감은 2천 년 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고객하며 살아야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하늘이 선택한 선민이 왜 이런 탕감을 치르게 됐는지 아직도 그들은 모릅니다.

하늘이 섭리의 완성을 위하여 초림 독생녀를 탄생시킬 선민으로 길러 나온 것이 한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참부모론 교육을 받아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 섭리의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1943년 한반도에 독생녀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 독생녀 탄생을 놓고 하늘은 기독교권이 책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 하였던, 재림 메시아의 책임을 하셔야 할 분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한국은 일제하에 있었고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시 한국은 민주와 공산진영으로 남북이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연합국이 하늘 섭리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갈라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늘은 독생녀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기간을 주셔야 하였기에 한국전쟁에 유엔의 16개국이 참전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초림 독생녀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는 참부모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참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통일교회 53년은 광야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기다려야만 했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하늘부모님의 꿈과 소원을 아는 나로서는 인내하며 지내왔는데, 내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아직 국가 복귀, 대륙 복귀가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서 탄생한 축복가정 2세권, 6천 년 만에 참부모에 의해서 퓨어 워터로 탄생된 2세권이 섭리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부모를 믿고 잘 성장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한 명일 때보다 열 명, 열 명일 때보다 백 명으로 수가 많아지는 퓨어 워터들이 되어 세상 앞에 섭리의 진실을 당당하게 밝히며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때 한국이 세계 앞에 섭리의 종주국으로서 책임을 했다 하는 자리에 서면 좋겠습니다. 







VISION 2025 승리를 위한 신한국 목회자 참부모론 특별교육

〈VISION 2025 승리를 위한 신한국 목회자 참부모론 특별교육〉이 천일국 12년 천력 1월 14일부터 27일까지(양 2.23~3.7) 13박 14일간 전국 16개 권역 230개 교회 263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신한국 목회자가 실체성령 초림 독생녀 참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예수님의 본질을 밝히고 준비된 기독교가 사명을 다해 참어머님을 독생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 정립을 위한 참부모론 교육, 참부모론 강의안 개발, 천심원 특별철야정성, 천심공명기도, 특강, 참부모론 강의 대회, 신한국 협회 데스밸리 특별 성엄 전수식, 천지인참부모님 성탄 및 신탐건 특별축복기념 예배, 천일국 특별 예배 등으로 마련됐다.

첫째 날 개회식에서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은 말씀을 통해 “2주간의 특별교육을 통해 참부모론을 다시 확실히 정립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부모님의 남북통일의 천운을 상속받아 조국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자”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참부모론 교육을 통해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집필한 교수진과 이기식 부협회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기식 부협회장은 참부모님 생애와 말씀에 대한 해석원리를 주제로 “말씀의 주인은 참부모님 양위분이시며 실체를 말씀보다 앞선다. 섭리경륜은 양위분의 선택과 결단, 책임분담 완수에 의해 실행되고 성취되었다. 참부모님의 섭리경륜의 결과는 실로 무오하다.”고 전했다.

이어 오택용 교수는 제1장 ‘총서’를 통해 독생녀 참어머님은 6천년 만에 탄생한 하늘부모님의 유일한 딸로서 섭리 완성의 중심축임을 증거했다.

황진수 교수는 제2장 ‘하늘부모님’을 주제로 창조주 하나님은 남성격과 여성격의 성품과 격위를 지닌 하늘부모님이시지만, 왜 이제껏 하나님 아버지로서만 불려 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도협섭 교수는 제3장 '기독교 2천년 역사의 본질'을 주제로 복귀섭리 4천년 역사의 본질은 독생자와 독생녀의 탄생이며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하셨고 다시 와서는 '어린양 혼인잔치'를 해야 하며 기독교의 본질은 독생녀의 탄생과 재림메시아의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교수는 제4장 '초림 독생녀 참어머님'을 주제로 참어머님은 하늘부모님과 직접 교감하며 성장하셨고 스스로 결심 하시어 성혼의 자리에, 참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주재완 교수는 제5장 '재림메시아 참아버님'을 주제로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메시아가 참아버님이며 창조 원리로 봤을 때 어린양 혼인잔치는 오직 독생녀와 재림메시아가 성혼하여 참부모가 되는 데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택용 교수는 제6장 하늘부모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같이 생활하는 '천일국 안착의 주요 섭리'를 주제로 강의를 전하며, "신한국 목회자 전체가 참어머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 하늘부모님의 꿈, 참부모님의 꿈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의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신한국 목회자는 참부모론 강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강의안을 만들고 권역별, 조별 발표를 통해 최종 6명이 나와 참부모론 강의대회를 실시했다.

제1강 총서_양운성 관악교회장 / 제2강 하늘부모님_최만옥 동해교회장 / 제3강 기독교 2천년 역사의 본질_김희득 순창교회장 / 제4강 6천년 만에 강림하신 초림독생녀 참어머님_이남경 북부산교회장 / 제5강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메시아 참아버님_김철수 인제교회장 / 제6강 천일국 주요 안착 섭리_이철호 동창원교회장





특별교육 기간 신한국 목회자들은 참부모론을 확실히 적립함은 물론, 매일 밤 참아버님께서 시무하시는 천심원에서 철야정성 및 천심공명기도 시간을 통해 참아버님과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과 공명하며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천일국 지도자 초청 특강을 통해 문연아 제1 비서실장은 참가정의 만며느리로서 참어머님을 모시며 느꼈던 진솔한 내용을 전하며 목회자들을 격려했다.

송용천 세계회장은 섭리의 황금기에 가정연합 공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책임은 참어머님과 공명하여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양창식 UPF 세계의장은 '신통일한국, 그날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한반도 분단 과정과 참부모님의 통일론을 소개하며, 오직 참부모님의 사상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국 목회자 특별교육 기간 현장의 식구들은 신한국 목회자 참부모론 특별교육 예배를 생중계로 참여하며 함께 정성을 모았다. 첫 번째 예배는 '천지인참부모님 성탄 및 신탐건 특별축복 기념 예배'로 천승교회 김석진 대교회장이 말씀을 전하였고, 두 번째 예배는 신탐건을 대표해 공주교회 '왕엄마를 닮은 퓨어워터'라는 주제로 박진국 교회장이 말씀을 전했다.



다. 또한 이 기간 충남권역 9명의 목회자는 '남북통일기원 백두산 천지 특별기도회'를 진행하며, 참여머님께서 축도 해주신 데스밸리 특별성염으로 천지를 성별함으로서 통일을 위한 정성을 올렸다. 13일째 저녁에는 천심원에서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를 위한 '신한국 협회 데스밸리 특별성염 전수식'이 거행됐다. 이기성 천심원장은 데스밸리 특별성염 전수식 보고기도를 통해 참여머님께서 전수해 주신 데스밸리 성염을 통해 세상을 복귀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간구했다. 이어 송광석 협회장은 데스밸리 성염을 증식하여 지원장과 230개 교회장들에게 전수했다.

특별교육의 폐회식이 천력 1월 27일(양 3.7) 실체성령 독생녀 참여머님을 모신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참여머님께서 폐회식 말씀을 통해 "하늘 섭리는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 실패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 실패 뒤에는 반드시 탕감이 따르기 때문에 섭리의 완성시대에 있어서는 진실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초림 독생자는 2천년 전에 탄생이 되었는데 독생녀는 없었어. 예수님의 소원은 초림 독생녀를 만나는 데 있다. 참부모 자리로 나가는 데 있다. 참부모의 책임은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독생녀 참여머니와 하나 되어 하늘부모님을 기쁘게 모시는 선민, 천일국의 종주국이 되자."고 축원하셨다.

폐회식은 경배, 찬양, 꽃다발 봉정, 대표보고(박영배 창원대교회장), 참부모론 모범강의 시연(대상:최만욱 강원동해교회장)으로 진행됐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 속에 마련된 신한국 목회자 참부모론 특별교육은 신한국 목회자 전체가 초림 독생녀 참여머님과 하나 되어 하늘 섭리의 역사와 본질을 올바르게 깨닫고 신령과 진리로 무장하여 가정연합 식구를 올바르게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예수님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준비된 기독교가 자신들의 사명을 인식하고 반드시 독생녀 참여머님을 모실 수 있는 위치에서 VISION 2025 천일국 안착 승리를 온전히 이루겠다는 결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성황리에 성료했다. 



천일국 13년을 향한 참부모님 섭리경륜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축복가정 식구 그리고 천일국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 12년 4월의 봄, 대지를 뚫고 솟아 오른 새싹과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초록으로 빛나는 싱그러운 산하에는 값없이 내리시
는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식구님 가정과 교회
에도 봄 햇살 같은 따사로운 하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축원
합니다.



오늘은 참어머님께서 몇 번에 걸쳐 강조하셨던 400년 전 종교개혁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그리고 참어머님께서 천일국 13년 승리를 향해 경륜하시는 섭리의 핵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1517년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천주교 구조에서
는 인간 본성이 억압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모실 수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를
열어야 할 하늘섭리를 놓고 볼 때 종교개혁은 필연이었습니다.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1543년 개혁 2세대인 칼빈에 의해 완결됩니다.
이 개혁 정신은 80여년이 지난 1620년 하늘을 직접 모시고 살고 싶다는 청교도들
이 신대륙에 정착하며 국가 단위로 확장됩니다. 신대륙 도착 직후 청교도들은 가
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를 짓고, 마지막으로 자신들
의 살 집을 지으면서 섭리적 중심국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편 종교개혁 400년 후인 1920년, 재림메시아 참아버님 탄생 때로부터 하늘은 새
로운 대 전환의 섭리를 경륜하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1943년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완성, 완결되고 있으며, 제2 이스라엘인 미국 건
국 400년만인 2020년 실제 천일국이 HJ천원을 중심으로 안착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로부터 참어머님을 중심한 실체 천일국 안착으로 귀결되고 있는 동시성적 섭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섭리의 진실을 밝히신 참어머님께서 는 지금 하늘부모님께서 자유로이 운행하실 수 있는 천원궁 천일성전을 봉헌하시고, 미래세대 뛰어워터 신탐건들을 천일국 인재들로 양성하시며, 실체 천일국의 문을 성령과 진리로 활짝 열어가고 계십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늘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기적과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숙지하고 이뤄가야 할 ‘천일국 13년을 향한 참부모님의 네 가지 섭리적 경륜’을 식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어머님께서 경륜하시는 4대 핵심섭리의 첫 번째는 ‘천일국 시대 본질 회복 섭리’입니다.

천일국 시대는 하늘부모님과 일체를 이루신 참부모님 양위분을 중심한 참부모 신학이 핵심이며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신한국은 전국 목회자에게 14일 참부모론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이 기간에 목회자 전원은 각자 강의안을 만들었고, 강의대회 까지 열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는 신한국 교회 전체로 번져, 모든 식구가 참부모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도 조속히 참부모론 교육이 실시돼, 전 세계 축복가정 식구 모두가 효정의 심정적 연대를 이뤄 참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본부는 또한 기독교 권 복귀를 위한 참부모론 강의안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미 3차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섭리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섭리’입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을 위한 제2차 40일 특별정성이 성혼 64주년을 기념하며 진행 중입니다. 천원궁은 천일국의 중앙청, 참부모님 생애업적을 드러낼 천지선학원, 그리고 하늘부모님을 모실 본성전인 천일성전과 더불어 하늘부모님의 섭리적 운행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입궁식을 1년 앞둔 이때 식구님들께서는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을 위해 각 교회에 마련된 천심원 특별기도실에서 다섯 가지 기도제목을 중심으로 하늘과 깊이 공명하는 특별정성의 시간을 가져 주십시오. 특히 참어머님께서 특별 하사해 주신 데스밸리 특별성염을 가슴에 품고 하늘이 준비한 의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핵심섭리는 ‘미래세대 양성 섭리’입니다.

천일국을 여시며 참어머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부분이 미래세대 양성입니다. 참어머님께서 는 ‘신탐건 제1기 출정식’과 128명의 신탐건 해외선교 파송으로 미래세대 양성 섭리를 확고히 안착 시키셨습니다. 세계 곳곳에 파송된 신탐건들은 선교 임지에서 전력투구로 전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 교회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신탐건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파송 국가는 제2의 심정적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핵심섭리는 ‘신령과 진리의 영성회복 섭리’입니다.

세계정성본부 천심원을 중심한 신령과 진리의 영성회복 섭리가 전 세계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천심원 특별철야정성이 드디어 1000회를 맞았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철야정성이 1000회를 돌파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 축복가정 식구들의 신실한 믿음과 정성은 기어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늘부모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한 조건이며, 내년 4월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을 위한 확고한 믿음의 기대가 돼 줄 것입니다. 이제 식구 여러분들은 천심원 특별 철야정성을 바탕으로 실제 기대를 세우기 위한 전도에 정말 간절한 마음, 간절한 심정으로 매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축복가정 식구, 그리고 천일국 지도자 여러분!

참어머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섭리적 경륜 핵심 4가지를 기치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있는 1년 후를 바라보며 하늘부모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실적으로! 정말 진솔하게 증거해 봅시다.

하늘부모님께서 “너희들이 참어머님과 함께 정말 수고했구나, 정말 고맙다” 하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2024년 이 청룡의 해,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만들어가 봅시다. 기독교권 복귀는 물론이고 국가복귀,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안착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4월 한 달도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두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탐건 제1기 해외 선교 활동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탐건 제1기 출발수련 및 출정식(양 2.22) 이후 (양) 2월 29일까지 1차로 선문 UPA 32명이 미국, 유럽, 캐나다로, 한국 신탐건 4명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출발했다. 이어 (양) 3월 1일에는 2차로 선문 UPA 10명이 아프리카로, 한국 신탐건 3명이 필리핀 선교사로 출발했다. 일본 신탐건 39명은 학교 일정상 (양) 3월 3일까지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차례대로 선교 현장으로 떠났다.

세계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파송된 신탐건을 비롯한 선문 UPA 선교사들은 참여머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 현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참여머님의 섭리를 위한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신미국

문신흥 생도를 포함하여 신미국에 파송된 신탐건 1기 생도들은 본격적으로 임지로 이동하여 전도활동을 위한 교육에 임했다. 가장 먼저 신탐건 1기는 선배님들을 모시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섭리 속 미국의 사명 그리고 효진님의 효정을 상속받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미국의 사명을 배우며 문신흥 생도를 포함한 신탐건 1기생들은 현장 실습을 시작하며, 신미국 가정연합 교회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LA로 파송된 문신흥 생도는 1주일 만에 3명의 게스트를 데려왔다.

문신흥 생도

사랑하는 참어머님, 저를 포함한 UPA 생도 5명은 미국의 뉴욕주, 벨베디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식구들을 만나면서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역사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그 위대함과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참어머님, 오늘날 미국에서 그간 참부모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노력하셨던 엄청난 기반들과 초창기 식구들이 삶을 희생해 가며 세웠던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며, 참어머님과 함께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하늘부모님의 섭리 속에 독생녀 참어머님께서 밝히신 진실을 제대로 증명하며 제 삶과 제 실천을 통해 승리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제 삶을 온전히 부모님께 드립니다. 참어머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카키우치 아키나 생도

참부모님께서 세계 섭리에 있어 주요하게 말씀하셨던 미국의 사명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미국에 왔는지, 선교 기간에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명확한 목표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참부모님을 대신하여 참부모님께서 이 순간 가장 만나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 참부모님을 깨닫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이 기간, 마음 속에 느껴온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미레이카 생도

벨베디아, 이스트 가든, 맨해튼 센터, 뉴욕 호텔 등 여러 곳에 방문하거나 선배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부모님께서 극난한 환경에서도 미국에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울이신 노력과 수고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1세 선배님들이 걸어오신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 전진하셨던 그 신앙과 심정을 가지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이상 하시는 그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어머님! 반드시 참부모님께 큰 기쁨과 희망이 될 수 있는 효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럽

문신출 생도를 포함하여 유럽 전역에 파송된 신탈건 1기는 유럽 선교에 필요한 역사 공부, 영어학습 등을 익히며 길거리 전도, 게스트 관리에 돌입했다. 신유럽에 파송된 신탈건 1기는 참여머님의 간절한 심정을 깨닫고,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언어의 벽을 넘어 섭리의 진실,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가유 생도

참여머님께서서는 퓨어워터는 정지상태에 있어서는 안된다. 흘러가야 된다. 더 높고 넓은 세계로 흘러가야 한다. 타락한 세계를 정화하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지상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기쁜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과 하나된 마음, 그리고 늘 참사랑을 베풀다면 저는 반드시 신알바니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여머님, 걱정하지마십시오! 반드시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앞에 더 많은 알바니아를 비롯한 신유럽의 희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참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콘도 유로 생도

참여머님과 함께 한 출정식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현장에 와서 저희는 전도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알릴 수 있는 활동들을 알바니아 멤버들과 열심히 찾고 상속받고 임하고 있습니다. 참여머님, 저는 UPA의 GMP 프로그램을 통해 알바니아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솔직히 자기의 한계를 돌파할 수 없었는데, 현재 문신출 생도가 보여주는 알바니아를 위하는 모습, 어떤 누구도 맞춰가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저는 한걸음씩 제 한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옆에 있는 멤버들



과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바라보며 참여머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 감사히 걷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움직여서 아름답고 빛나는 세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에 히로아키

따스한 사랑으로 늘 안아 주시는 참여머님 보고 싶습니다. 저희 신탐건 1기들은 출발수련에서 배운 것과 결의, 그리고 참여머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기고 세계곳곳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2월 24일 문신출, 문지우, 콘도 유토, 사카이 아야메, 한 정민, 마에 히로아키 총 6명으로 알바니아 티라나로 파송되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모두가 알바니아로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인도하심에 하늘부모님 천지인참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여머님! 참여머님께서 신탐건 출정식 때 주신 말씀과 그때 저희가 올렸던 결의를 잊지 않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과 하나가 된 자녀가 되도록 온 몸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승리를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아프리카

신아프리카 잠비아에 파송된 신탐건 1기생들은 초대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기반을 이어받아 천일국 시대에 걸맞는 선교활동을 통해 승리의 결과를 올리기 위해 신아프리카 효정량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신아프리카에서는 효정량과 함께 신탐건 1기가 함께 할 수 있는 21일 수련, 40일 강의 실습 및 주말 전도, 70일 전도 활동을 비롯한 6개월간의 세부 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신탐건 1기는 초림 독생녀 참여머님께서 거듭 강조하시고 계시는 섭리의 황금기, 하늘의 진실,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신아프리카 곳곳에 확산하며, 천일국 안착이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천일국 12년 성화 참자녀님 추모예배

〈성화 참자녀님 추모예배〉가 천일국 12년 천력 2월 10일(양 3.19) 오후 7시, HJ천주천보수련원 천심원에서 신한국 지도자, 섭리기관장, 신한국 목회자, 청년교회장, 신한국 본부 및 HJ 천원단지 공직자 및 천원궁 천원대교회 축복가정 및 식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인류구원을 위한 섭리의 길에서 참자녀님을 먼저 영계로 보내야만 했던 참부모님의 심정을 심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특pecially 참아버님 성화이후 홀로 섭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참어머님의 심정을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말했다.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보고기도를 통해 “하늘부모님 해방과 인류구원의 실천궁행적 삶을 한 순간도 놓지 않으셨던 참부모님! 아벨의 피어린 희생의 터 위에 천주적 차원의 섭리를 완성 완결 완료하시고, 하나님 왕권 즉 위식을 봉헌해 올림으로써 천상과 지상이 하나 된 하늘부모님의 왕국, 천일국이 선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 모두는 깊이 깨달아야 하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영계에 계시는 참자녀님들께서 바라시는 하늘부모님의 꿈, 참부모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축복가정으로서 효정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이어 이기성 천심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참부모님께서는 탕감복귀 섭리노정을 걸으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받으셨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시련은 참자녀의 희생이다. 그때마다 참부모님께서는 섭리적 의미를 설명하시며, 하늘부모님 섭리에 희망을 붙여넣으셨다.”고 전하며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한 참자녀님의 성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천심원에 모신 효진님, 흥진님의 효정을 닮아 천상의 참아버님과 지상의 참어머님을 모시고 참어머님의 뜻인 천일국 안착을 승리적으로 이루자고 전했다.

이날 추모예배는 추모예배는 성초점화(참가정), 개회선언, 천일국 제창, 가정맹세, 보고기도, 헌배 및 경배, hymn, 회고담(사광기 특별순회사), 추모사 및 축도(이기성 천심원장), 억만세 삼창(김동연 CARP 한국회장),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기독교권 복귀를 위한 참부모론 강의안 개발 제3차 공청회

가정연합 세계본부 주관 <기독교권 복귀를 위한 참부모론 강의안 개발 제3차 공청회>가 천일국 12년 1월 28일(양 3.8)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HJ천주천보수련원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3차 공청회에는 천정궁 세계본부를 비롯하여 신한국협회, 섭리기관, 그리고 신학대 교수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제3차 공청회는 지난 제1·2차 공청회에 집중됐던 참부모론 강의안 개발의 방향성과 로버트 키틀 천의원장의 강의를 포함하여 하늘부모님의 본질과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 그리고 초림 독생녀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온전히, 올바르게 드러내야 한다는 데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해외가 아닌 섭리의 조국, 신한국의 기독교권을 대상으로 섭리의 진실, 초림 독생녀의 현현과 더불어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알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에 대한 강의안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오전, 오후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신한국 협회(신한국 전략안)와 천주평화연합(UPF 강의안 소개), 한국종교협의회(종교협의회 활동 계획)와 청년연합(미래세대 강의안 개발)이 기독교권 복귀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보고 및 질의 시간으로 이어졌으며, 오후에는 기독교권 복귀를 위한 참부모론 강의안 발표(황보국 천일국 대사관장, 조한복 천승교회 목사, 윤경환 종로교회 목사)에 대한 연구 성과 및 방향 모색, 전문적인 자문 및 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발표 이후에는 심도 있는 토론 및 발전적 제안들이 오고 갔으며, 공청회 말미에는 조만웅 원로회 회장,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그리고 신동모 제1비서실 부실장의 참부모론 강의안의 시대적 필요성 및 강의안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참부모론 강의안 개발 연구에 대한 실제적 노력을 가하는 연구진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HJ천원 플라워파크

참부모님께서는 2002년 1월 19일 청평성지를 천원(天苑)으로 명명하시며 천원은 복귀되고 완성된 에덴동산이자,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인류한가족 공동체의 모델기지, 평화이상세계 천주평화통일국의 중심공동체라는 뜻을 담으셨다.

참어머님께서는 2013년 천일국 기원절 선포 이후, 천일국의 실체적 안착을 위한 효정을 인류 앞에 전수해 주시며, 2017년 7월 1일을 기해 천원을 HJ천원으로 재명명하셨다.

인류 앞에 지상천국, 하나님이 꿈꾸어 오셨던 에덴동산이 되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없는 정오정착 된 모습으로 마음 한 뜻으로 하늘 앞에 기쁨과 송영을 돌려드리면서 하늘부모님이 소원하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017.7.1)

참어머님께서는 2023년 평화세계의 모델이자 천일국 수도인 HJ천원 섭리를 본격화하시며 하늘섭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HJ천원 플라워파크’로 새롭게 단장해 주시며 HJ천원 플라워파크의 운영기획을 책임질 ‘한주그룹’을 세워주셨다.

HJ천원 플라워파크는 환경·경제·레저·교육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복귀된 에덴동산’으로, 3대 축복 완성의 이상기지로, 축복가정과 인류가 교육받고 생활하며 완성을 향해 성장해 갈 특별한 기지로 개발하고 계신 것이다.

나의 소원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 당대에 다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하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2016.5.6)

한주그룹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매그놀리아 멋집, 가평베고니아 새 정원, HJ천원, HJ아젤리아 빌라이다.



1층 신비동물원



초식 미니 동물 체험 시설인 <신비동물원>은 동물과 더 가까이 교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트렌드에 걸맞은 공간으로 신설되었다.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서비스와 이벤트, 생태설명회 등을 갖추어 한층 더 동물 생태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대자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

1층 부흥가구

원목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이 조화를 이루는 <부흥가구>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원목을 사용하여 일상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가구와 악세서리가 판매 중이다. 자연 나무의 특성을 살려 산소 배출 및 이산화탄소 흡수하여 집안의 쾌적한 공기를 유지해주는 등,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만날 수 있다.



2층 아쿠아가든 카페&레스토랑



대자연을 품은 국내 최대 수중정원인 <아쿠아가든 카페>는 희귀물고기들을 이색적인 컨셉으로 모은 거대한 수족관을 축소시켜 놓은 곳이다. 단순 볼거리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과 독보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 속 생물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층 천상헌 천상 중식레스토랑

20년간 다섯 분의 대통령을 모신 전 청와대 총괄조리 팀장 천상헌 셰프가 선보인 <천상헌 천상>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진 공간에서 대통령을 모시던 마음으로 최고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3층 크리스티나한

남다른 품격을 바탕으로 고급스러움을 갖춘 <크리스티나한>은 축복식 예물과 예복 외에도 다양한 주얼리와 장신구 등 100여 점의 하이엔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심플하고 디테일한 드레스는 주인공을 더욱 사랑스럽고 돋보이게 하며, 깔끔한 블랙 텍시도와 보타이는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 진중한 주인공의 품격을 보여준다.



한편 HJ천원 플라워파크 입구 쪽에 자리잡은 HJ매그놀리아 멋집은 천일국 수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연면적 420평,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총 4개의 층으로 건설되었으며, 맛과 멋이 공존하고,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HJ천원 플라워파크의 꿈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봉헌됐다.



2017년 9월 6일 참여머님께서는 “추운 겨울 엄동설한에 강인함을 가지고 고귀한 모습으로 새봄을 알리는 것이 백목련, 자목련”과 같이 순결과 자연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원하시며, “이곳 천원

단지를 놓고 입문하는 자리에 있는 매그놀리아 멋집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참부모님의 참사랑을 배우고 공부하는, 미래의 희망을 추구하는 참사랑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고 말씀하셨다. 또

한 “이곳을 그리워하고 다녀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늘부모님에 대한 본연의 심정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참사랑의 사랑방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HJ 매그놀리아 멋집이 천원단지의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하셨다.

가평베고니아 새정원

학이 큰 날개를 펼치고 내려 앉는 모습을 상징하는 <가평베고니아 새정원>은 새가 하늘을 날다 잠시 쉬려 내려앉은 천상의 싯터를 상상하며 설계됐다. 계절마다 싱그러운 느낌으로 만발하는 다양한 꽃들과, 140여 마리의 새, 그리고 최고의 힐링을 선사하는 정원은 원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생물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멸종 위기종의 보전과 인류의 책임을 교육한다.





HJ크루즈

북한강 천년 뱃길 복원 사업인 해양수산부 환경 친화적 선박 1호 <HJ크루즈>는 북한강을 거점으로 한 친환경 유람선 관광사업이다. 국내 최초로 전기추진 기술이 도입된 440t급 친환경 유람선은 운항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친환경 배터리를 사용해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자유로워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케하다.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환경 문제를 극복한 친환경 크루즈는 경기-강원권의 수상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HJ아젤리아 빌라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숲속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휴식에 필요한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40평형의 <HJ아젤리아 빌라>는 유럽풍 고품격 빌리지로 총 18세대가 봉헌되어 세계 지도자 및 VIP 고급빌라로 사용된 곳이다. 현재는 가정연합 식구를 포함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개방되고 있다.



HJ천원 플라워파크에는 이 외에도, 심정의 터전인 HJ천주천보수련원, 사회복지시설인 ‘청심빌리지’, 국내 최대규모의 공연장인 ‘청심평화월드센터’와 효정국제문화재단, 정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한 연구시설 ‘HJ순수원’, 청평수변에 맛집으로 자리 잡은 ‘헤븐지버기’와 ‘효정카페’, ‘한원집’, ‘효정연’, 첨단 종합진료장비를 갖춘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 교육기관인 ‘청심유치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선학UP대학원대학교’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HJ글로벌뉴스 개편 및 대륙별 영상실무자 교육

세계본부 피스티비 주관 대륙별 영상실무자 교육이 천일국 12년 천력 1월 21일(양 3.1) 8주간의 기간을 두고 출발했다.

1초권 시대 천일국 소식을 전 세계 언어로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고, 선교 현장의 섭리를 기록, 제작할 수 있게 지도해 주고 계시는 참여머님께서는 교육에 참가하는 대륙에 영상촬영 장비 및 현지에서 영상선교에 힘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며 참부모의 말씀이 전세계,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 이에 세계본부에서는 전 세계 대륙과 섭리 현장의 활동과 소식 전달을 책임질 30세 미만 청년 공직자 및 공직 희망자들을 선별, 영상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두 달간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본부 피스티비는 현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시나리오 작성, 기획, 촬영, 편집, 배포)을 통해 독생녀 참여머님의 섭리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공유하는 공직자로서의 깊은 사명 의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추후 대륙 영상 실무자들은 세계본부 피스티비와 주기적 소통을 통해 참여머님께서 말씀하신 한주효동원에 등재될 천일국 인물 인터뷰 제작 및 대륙 소식을 다양하게 공유하는 매개체로 성장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륙 담당자와 세계본부 피스티비에 사전 등록 후 최종 진행 중에 있다. 





참어머님께 올리는 서신

2024년 세계본부 피스티비 교육생 신남미 대륙 이은선

항상 사랑하고 그리운 참어머님, 저는 36만쌍 한국-일본가정 축복으로 성장한 이은선입니다. 하늘의 섭리를 1분 1초라도 앞당기는 미래세대가 되어야한다는 참어머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빨리 하늘의 섭리를 알리는 강력한 무기는 미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천일국 국영 방송국인 피스티비에서 직접, 가장 첫 번째 대륙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교육기간동안 사용하는 카메라 장비 및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교육 이후 대륙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사해주신 은혜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참어머님, 교육기간을 통해 저는 어머님께서 미디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 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육성하시는데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지 마음 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8주간의 교육 이후 참어머님의 동정과 섭리를 빠르게 대륙에 전달하여 '하늘의 섭리에 발 맞추어 함께 나아가는 신남미'로, 남미의 희망과 승리의 보고 드릴 수 있는 '효자의 대륙 신남미의 미래세대'로 성장하여 하늘이 바라시는 부흥을 일으키겠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지상에 재세하시는 동안 기쁨과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수무강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4년 세계본부 피스티비 교육생 신남미 대륙 잔칸 충남

안녕하세요, 참어머님. 저는 브라질-칠레가정 2세 잔칸 충남이라고 합니다.

참어머님, 저는 현대사회의 온라인 미디어 소비가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늘부모님성회 또한 참부모님의 말씀과 섭리 방향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전 세계 식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Peace TV 교육과정을 준비해 주신 참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섭리의 중심지인 이곳 신한국과 신남미 사이에 더 큰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신남미는 김동우 신남미 대륙회장을 주축으로 신남미 대륙본부 건물에 스튜디오를 구축했고, 현재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신남미에 필요 장비와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면 하늘부모님을 증거하고 널리 알리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육기간 참어머님께서 하사해 주신 촬영장비를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교육받아 남미대륙에 돌아가서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참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별 목회자 수련

동남권의 <차세대를 위한 리더십 리트릿>이 천일국 12년 천력 1월 21일부터 22일까지(양 3. 1~ 2) 푸에르토리코 파하르도 호텔에서 38명의 목회자와, 청년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수련회는 참여머님을 중심한 ‘VISION 2024’ 계획을 공유하고, 동남권 공직자들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동남권의 아킬레 아콜라체 목사는 참석한 모두에게 환영인사를 전하며, 하늘부모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한 참여머님의 절박하신 심정과 하나되어 교회성장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이어 목회자와 청년지도자는 교회성장을 위해 현재 교회의 내부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환경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낸 후, 목표설정과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축복가정국 중심으로 축복후보자 모색 및 교육내용과 관리방안을 공유했다.





1박 2일간 개최된 동남권 수련회는 독생녀 참어머님을 모시고 2024년 세워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전진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마무리됐다.

신미국 중서부 시카고 가정교회 천심원에서는 천일국 12년 천력 1월 21일부터 23일까지(양 3. 1~3) 중서부 목회자 부부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련회가 개최됐다.

천심원 수련회는 참어머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적 중요성을 인식하며 전체가 하나된 가운데 정성을 올리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금번 수련회는 참어머님의 말씀인 시대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참석자 전체가 하나 되어 하늘이 바라는 모습으로 거듭나는데 있으며, 행복한 가정과 교회 단체가 연계하여 하나의 목표인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타카미 가즈오 담임목사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참어머님의 천일국 섭리와 국가복귀 비전을 명확히 듣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현장의 활동사례를 공유하며 참석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하나되어 전진하라는 참어머님의 천심원 섭리를 기반으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의를 다짐하며 2박 3일간의 간절한 기도로 수련회를 마무리했다. 

국제 여성의 날 기념식

벨기에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벨기에 가정연합에서는 사회적 저명인사들과 연대해 여성의 종교적 자유와 신념강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저명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럽 의회에서 진행됐다.

한스진 제네바 부위원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예로 들며, “유엔 창설 이래 유엔의 인권 규범 제정과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인권 회의의 활동에 있어 비정부간기구(NGO)의 참여와 기여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을 가진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참여와 이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브뤼셀 네팔 대사관 대표는 네팔의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과 관심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오늘날 네팔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 의료, 경제적 어려움, 우울과 불안에 대한 네팔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한편 벨기에 가정연합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분야에서 참정권, 일할 권리, 차별 철폐를 공식화하며 전 세계 여성들의 인권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프랑스

프랑스 가정연합에서도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초종교 대화에 기여하는 여성〉라는 주제로 20개국 온라인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가장 먼저 가톨릭을 대표하여 바티칸 성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마리 뒤랑 드 보크레송은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해 여성들이 책임감 있는 자리에서 더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슬람을 대표하여 푸지아 아카지는 코란 내용을 잠시 언급하며 현대사회의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정연합을 대표한 브리짓 와다 여성부 회장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루 종일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 15명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역할과 삶을 살펴보고, 초종교를 통한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 여성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으는데 소중한 경험이 됐다. 

2024년 뉴질랜드 세계 낚시 월드컵

신아시아태평양 뉴질랜드에서는 천주평화연합(UPF)과 세계스포츠낚시연합(WSFF)이 주최한 <2024년 뉴질랜드 세계 낚시 월드컵>이 천일국 12년 천력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양 3.8~12)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렸다.

4박 5일간 15개국에서 71명이 참석한 낚시 월드컵은 바다를 중심으로 세계를 결속하고자 하셨던 참부모님 해양섭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첫날(8일)에는 개막식과 오리엔테이션이 Hon. Shane Jones 해양수산부 장관과 Keutekarakia Keu Mataroa 쿡 아일랜드 총영사를 포함한 약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윤태근 WSFF 세계회장과 레온 뉴질랜드 회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둘째 날(9일) 참석자들은 마리나에 도착하여 보트로 이동하여 적응 연습 및 낚시 월드컵 예선전 경기에 나섰다.

한편 같은 날 <심포지엄>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사(뉴질랜드 주재 쿡 제도 총영사, 최진호 WSFF 신임 회장), 연설(호리 마사이치 신아시아태평양 대륙회장), 특강(유타가 야마다 오세아니아 UPF 의장), 강의(해양자원 관리와 보존에 대한 환경운동가), 해양자원 보존 및 개발을 위한 '2024년 오클랜드 블루 퍼시픽 서명식' 순으로 열렸다.





셋째 날(10일)은 준결승전, 패자부활전, 결승전 그리고 대망의 시상식이 1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인전 시상에는 1등 리처드 몰드(뉴질랜드), 2등 크리스 브루스(호주), 3등 캄레쉬 나라얀(피지)가 수상했으며, 단체전 시상에는 1등 우루과이팀, 2등 일본팀, 3등 말레이시아팀이 차지했다.

세계 낚시 월드컵에서 잡힌 700마리의 물고기 중 90%는 카이 Kai Ika와 Papatuanuku Marae라는 NGO 단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 기부됐다.

뉴질랜드 가정연합 식구들은 금번 낚시 월드컵을 통해 각기 다른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섭리를 깨닫고 실천하며, 최고의 기억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기꺼이 봉사했다. 또한 낚시 월드컵에 참여한 참가자들 역시 무한한 에너지와 열정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사전 안내와 교육을 받고 현장 활동에 참여했다.

다섯째 날(12일) 뉴질랜드 UPF는 참부모님의 해양 섭리에 대한 미팅을 통해 2024년 로드맵을 공유하며, 전체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효정 아카데미 발대식, 효정랑 14기 입학식 및 효정랑 12기 졸업식

브라질에 위치한 신남미 본부교회에서는 천일국 12년 천력 1월 23일(양 3.3) 가정연합과 신남미 청년학생연합 주최로 효정 아카데미 발대식 및 효정랑 14기 입학식과 효정랑 12기 졸업식 등 세가지 주요행사를 거행했다.

행사는 김동우 신남미 대륙회장을 포함하여 국가회장, 목회자, 섭리기관 대표, 식구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하늘의 사명을 받은 1·2세 청년들은(12기 6명: 졸업/ 13기 6명: 신문 UPA 활동, 13·14기 42명: 대륙 내 활동)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에 따라 독생녀 참여머님과 하나되어 섭리의

중심자로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신앙생활과 미션 활동에 전념할 것을 결의했다.

김동우 대륙회장은 지난 21일간 수련을 회상하며 기조연설을 통해 “독생녀 참여머님께서 2세 청년들을 ‘퓨어워터’ 즉 ‘순결한 물’이라 하시며, 타락세상을 정화하는 참자녀가 되라고 축복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삶의 길잡이로 삼아,

섭리의 중심인 독생녀 참여머님과 하나되어 전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별히 이날의 행사를 위해 김성남 분원장, 사사키 코이치 협회장, 사무엘 오타린하레스 신남미 청년연합 회장, 서성종 2지구장, 시몽 페라볼리 신남미 UPF의장, 엔리케 쇠레스 지사, 이용찬 목사, 일다 카세레스 볼리비아 협회장 등이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효정랑 2기 21일 수련 개회식

신아프리카 효정랑 2기 21일 수련 개회식이 천일국 12년 천력 1월 27일(양 3.6)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잠비아 루사카의 HJ천주천보수련원 분원에서 힘차게 시작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효정랑 2기의 환영과 축하의 뜻을 표하고자, 바카리 카마라 신아프리카 천의원장을 비롯하여 신아프리카 섭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국가 지도자, 선교사, 지역 목회자 등이 참석했다. 지도자들의 격려사 이후 참석자 전원은 참부모님과 하늘부모님이 뜻과 참어머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온 세상에 평화를 전파하자는 각오와 결의의 노래를 선보였다.

참어머님께서 천일국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성화학생, 청년학생, 카프 등 전 세계 축복가정 2세·3세를 특별히 관리 교육하시며, 지속적인 인재육성 방안 체계를 마련하고 계신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아프리카 효정랑 2기 수련은 젊음의 열정과 패기로 천일국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되리라 믿는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늘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축복 가정 2세, 3세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더 크게 하늘 앞에 충효를 다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특별히 관리해서 교육하고 싶습니다.”(양 2019.5.19)

“여러분은 6천년 만에 참부모가 찾은, 천일국 안착을 위해 일선에서 잘 자라야 하는 효정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들었어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을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미래의 지도자로서 성장시킬 것입니다.”(양 2019.7.21) 



효정의 삶

데이비드 이튼

성가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효정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



1. 하나님과의 첫만남

저는 가톨릭 집안에서 12명의 형제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가톨릭 학교에 다녔지만 당시 제게 종교는 큰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시절 제게 음악만이 종교였고, 음악만이 삶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밴드와 오케스트라를 통해 저는 모든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갔을 때도, 음악관련 전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72년 어느 날, 저는 성경공부에 몰두하던 친구에게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제게 “데이비드, 성경 공부시간에 우리에게 곧 재림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들었어. 우리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종교는 제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그 친구의 말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재림메시아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날이 온다면 제 가족, 주변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직업은 제게 어떤 의미가 될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974년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콜럼버스캠퍼스에 수업을 앞두고, 독일인 여성 한 명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함께 어디론가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생각할 겨를은 물론 거절할 틈도 없이 어떤 힘에 이끌려 강의하는 장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상세계에 대한 청사진과 더불어, 성경 속 중심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내용들로 저는 많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저는 참부모님에 대한 의구심으로 워크숍에 참석했고, 참부모님에 대한 사명에 감동과 감사함을 갖으며 통일원리와의 첫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학부 전공(음악)을 반드시 끝내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른 강의나 수련회에는 한동안 참석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제게 “문선명이 누구인지 더 탐구해 보아라”는 음성과 역사를 펼치셨고, 자연스럽게 제 삶에 임하셨습니다.

2. 참부모님과 첫 만남

참아버님을 처음 본 것은 1974년 11월 12일 에리 크라운 공연장 행사 때였습니다. 당시 참아버님은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진심으로 영어로 번역되는 그 내용이 참아버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되었고, 하늘의 음성에 의해 참된 부

모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7일, 21일 40일, 120일간의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듣는 내용을 통해 제 믿음이 강렬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게 참 어머님을 처음 뵈었던 것은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 이후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강렬한 참부모님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때문에 통일운동도 목회자의 설교내용도 몰랐지만 실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3. 지휘를 하게 된 동기

저는 어린시절부터 ‘뉴욕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는 것을 꿈 껴 왔습니다. 교회와의 만남 이후 지휘자의 꿈을 접고 2년간 교회 생활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참아버님께서서는 뉴욕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인수하시고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모색하고 계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서는 일류 대 오케스트라를 만드시겠다는 이념으로 박보희 회장을 악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셨고, 저 역시 오케스트라에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디션에는 참아버님께서도 참석하셨고, 그렇게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몇 년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참아버님께서서는 멤버 반은 영국으로 또 다른 반은 미국 보스턴에서 활동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보스턴으로 가게 되었고, 참아버님께서서는 보스턴 밴드에게 박보희 총재를 중심으로 대학가에서 음악 팀을 만들어 CARP 활동을 부흥시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간 CARP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후 뉴욕으로 돌아와 공연예술 업무를 이어가며 지난 꿈이었던 뉴욕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꿈이 자연스럽게 하늘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이뤄진 결과였습니다.

4. 미국에서의 활동

참아버님께서 ‘뉴욕시 심포니’를 통해 가지셨던 목표는 단 하나, 뉴욕에서 전문적인 신뢰를 얻는데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참아버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서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정해 뉴욕 최고의 음악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뉴욕시 심포니는 최고의 수준을 갖춘 프리랜서 아티스트들을 고용하여 카네기 홀을 비롯하여 링컨 센터, 유엔에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2~3년 이후 성장의 반열에 오른 오케스트라는 뉴욕의 음악 관련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프로듀서는 물론 아티스트와 연락이 닿았고, 그들은 협업 요청과 출연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유명한 예술가들을 통해 뉴욕시 심포니는 그들이 가진 예술적 가치와 연주 방법들을 익혀가며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5. 참부모님의 문화, 예술, 음악적 비전 소개

참아버님의 음악적 비전은 매우 심플합니다. 음악을 통해 세계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역시 굉장한 음악가들을 훈련하고 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한 정치적 긴장완화 및 평화 유지를 기원하며 평화적인 문화활동 전개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최고의 반열에 오른 우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음악이라는 예술적 도구를 통해 사랑과 희망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박보희 회장과 박준영씨를 뉴욕과 공연예술의 담당자로 명하셨고, 1988년 뉴욕 시티 심포니를 한국 올림픽 공연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이어 일본 투어도 네 번까지 진행했습니다.

6. 효진님과 음악 작업

1991년 맨하탄 센터 개발에 참여하여 2개의 아름다운 녹음실과 3개의 TV 스튜디오를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케빈 피카르와 함께 효진님 팀에 합류하여 맨하탄 센터에서 일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효진님께서서는 당시 새롭게 떠오르는 컴퓨터 기술을 배워 음악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음악가였던 제게는 매우 생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것이 정말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 깨닫게 되었고, 효진님께서 진심으로 미래를 예견하시고 음악적 세계에 있어서 한발 또는 그 이상 내다보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효진님은 저희가 그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엄청 강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성장된 저 또한, 시대의 흐름에 처지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컴퓨터 기술을 통한 작업 등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그런 효진님을 항상 자랑스러워하시며, “효진이처럼 천재성을 지닌 예술가가 드러내는 음악은 평화 앞에서 인종, 정치, 종교, 언어의 차이를 넘어 성숙한 문화적 풍토를 형성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참어머님께서서는 자서전을 통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예술과 문화이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제가 교회에 입교하기 전에 늘 생각해 왔던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7. 한국에 오게 된 계기

2015년 12월 미국 콘티넨탈 책임자인 김기훈 신미국 천의원장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부모님 성탄을 앞두고, 성탄 축하곡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저는 김기훈 천의원장의 요청에 따라 짧은 시에 멜로디를 붙여 데모 테이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사하게도 참어머님께서 제 음악을 좋아해주셨고,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효정 오케스트라”를 위해 한국에 와서 지휘자로, 작곡가의 그 역할을 다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몇일간 제 꿈에 참어머님께서 등장하시어, 성가 편찬 및 효정 오케스트라 지휘를 둘러싼 질문들을 수 없이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달 뒤 저는 2016년 참부모님 성혼기념일 전, 한국 입국을 명 받아 참어머님께서 바라시는 천일국 음악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 앞으로의 계획

참어머님께서서는 2025년 천원궁 입궁식을 위해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의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겠지만, 천일국 음악 편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곳에서 음악 관련 프로젝트 요청이 있어서 한동안은 개인 작업에도 몰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9. 에필로그

8년 전 참어머님의 부르심에 의해 한국에서 미션을 받았을 때도, 가족들은 제 사명을 적극 지지 해주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지금도 틈만 나면 제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당시 한국으로 오게 된 일은 저의 엄청난 효의 기준이 아닌, 자녀로서 당연한 책임과 도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항상 잊지 못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참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VISION 2025 승리를 위한 신한국 목회자 참부모론 특별교육

청일국 12년 치려 1월 27일 (양 03.07)

HH최주최보수권원 대성전